

그들은 어떻게 공부했나: 밀과 토크빌

서병훈(숭실대학교)

1. 생애

2. 우정

밀은 1835, 1840년 《미국의 민주주의》에 대해 두 차례나 서평을 썼다. 그가 토크빌에 대해 “진정 존경하는 마음”을 품지 않았으면 하기 힘든 일이었다. 밀은 1840년에 《미국의 민주주의》 2권을 읽고 나서 토크빌을 “정치철학의 지평을 바꿔버린 현존 최고 권위자”라고 극찬했다. 그해 연말에는 “이 시대에 나와 생각이 같으면서 내가 즐겁게 따라갈 만한 뛰어난 사람을 당신 말고는 찾을 수 없습니다”라는 말까지 했다. 밀 같은 사람이 누구에게 그런 상찬賞讚을 또 할 수 있을까?

토크빌도 그냥 있지는 않았다. 그 역시 밀을 칭찬했는데, 다만 수위가 좀 달랐다.¹⁾ 밀이 두 번이나 서평을 쓰면서 토크빌을 “우리 시대의 몽테스키외”라고 극찬한 것에 비하면 조금 균형이 맞지 않는 느낌이다.

이 시기를 두 사람의 우정사(友情史)에서 밀월시기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1840년 이후 영국과 프랑스 관계가 험악해지면서 밀과 토크빌의 관계도 급냉(急冷)하게 된다. 밀은 1842년 편지에서 토크빌을 대놓고 비판했다:

[……] 그러나 프랑스와 문명의 이름으로, 우리 후손들은 선생같이 고상하고 교양 있는 사람에게, 지금 이 시대를 휩쓸고 있는 천박하고 유치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진정 민족에게 영광이고 중요한 것인지 보다 나은 생각을 가르쳐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 대륙에서 스페인을 제외하고 그렇게 유치하고 저급한 감정에 휩쓸리는 나라가 또 어디 있습니까. 여기 영국에서는 어리석고 무식한 사람들조차 요란하고 시끄럽게 내세우는 것은 결코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상한 단절”이 우정에 금이 가게 만들었다. 세월이 많이 흐른 뒤 토크빌이 애잔하게 회고했듯이, 두 사람은 ‘편지를 주고받는 아름다운 습관을 잃어버렸다.’

1) 1835년 토크빌은 자기 책을 논평한 사람들 중에서 아마도 밀이 그 책을 온전히 이해한 유일한 사람일 것이라고 했다. 밀이 자신의 “생각과 숨은 의도까지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그 세세한 내용까지 분명히 이해”하고 있고 바로 그런 이유에서 밀이 “아프게 비판한 것도 호의적인 서술 못지않게 자신에게 기쁨을 주었다”며 고마워했다. 토크빌은 밀의 1840년 서평에 대해서도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그는 “두 사람의 관점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에서 밀의 그 서평과 자신의 책을 한데 묶어 보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랜 공백을 깨고 1856년 6월에 토크빌이 《양시앵 레짐과 프랑스 혁명》을 밀에게 보냈다. 토크빌은 밀이 자기 책을 “진정한 우정의 증표”로 받아주길 희망했다. 밀은 외국 여행 때문에 반년이나 지나 감사의 답장을 보냈다. 그 편지에서 밀은 《양시앵 레짐과 프랑스 혁명》을 관통하는 “자유에 대한 고결한 사랑에 더할 수 없이 깊은 공감”을 표했다. 토크빌은 이를 받아 밀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직설적으로 털어놓았다. 그는 2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밀의 생각을 열렬히 흠모”해왔다면서 그 누구보다 “밀의 사상을 소중히 여긴다”고 고백했다. 토크빌은 두 사람 사이에 오랫동안 소식이 끊겼던 것을 아쉬워하며 이제 “다시 것처럼 재미있는 이야기를 길게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1859년 초, 이번에는 밀이 《자유론》을 보내주었다. 그러나 이때는 이미 토크빌이 병세가 너무 깊어 책을 읽을 수가 없었다. 토크빌은 숨을 거두기 두 달 전 밀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에서 “자유야말로 우리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함께 걸어가야 할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선생이 매우 바쁘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답장을 보내달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선생이 나를 완전히 잊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순간 내가 바라는 것은 그것뿐입니다.

그런데, 밀은 《자서전》에서 자신이 만나 교류했던 여러 사상가들에 날카로운 비판을 덧붙였으나 토크빌에 대해서는 아무런 부정적 언급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정치적 이상이 “순수 민주주의로부터 수정된 형태로 변화”한 것이 토크빌의 《미국의 민주주의》를 “읽고, 아니 공부하고 나서”였다고 고백했다. 밀은 그 “대단한 책”이 민주주의의 장점과 함께 민주주의에 따라다니는 특별한 위험도 탁월하게 논했기 때문에 이후 자신의 관점도 점점 같은 방향으로 변화해 나갔다고 회고했다.

그는 또한 중앙 집권 문제에 관한 토크빌의 심층 분석에서도 많은 것을 배웠다고 말했다. 토크빌의 해안 덕분에 지방 분권의 이점을 살림과 동시에 중앙 정부의 간섭이 갖는 긍정적 측면도 헤아릴 수 있었다고 했다. 밀은 자신이 양 극단의 과오를 조심스럽게 피해 가며 각각의 장점만을 종합할 수 있었던 것이 토크빌의 가르침 때문이었다고 고마워했다. 밀이 《자서전》의 초고를 완성한 것은 1854년 무렵으로, 두 사람이 연락을 끊고 지내던 시기였다.

3. 교육과정

1) 밀: 아버지의 영재 교육

밀은 학교를 한 번도 다니지 않았다. 정규 교육을 전혀 받지 않았다. 그 빈틈은 아버지가 메워주었다. 밀은 아버지가 만들다시피 했다. 오직 아버지의 지도 아래 그가 설정한 커리큘럼에 따라 무섭게 공부했을 뿐이다. 아버지의 서재에서 마주친 여러 지성들이 오롯이 그의 스승이 되었다.

제임스 밀은 아들을 전형적인 공리주의 인간으로 키우고 싶었다. 그는 어린아이의 정신 속으로 흘러 들어가는 경험을 통제할 수 있다면 그 아이의 성격과 능력을 의도적으로 형성하고 결정할 수 있다고 믿었다. 제임스 밀은 이 통제 과정이 바로 교육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관된 교육을 통해 아들의 마음속에 완전한 공리주의가 싹트기를 기대했다.

존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특이하고 놀라운 교육’을 《자서전》에 자세하게 기록했다. 좁고 어수선한 거실의 큰 책상에 부자가 마주 보고 앉고 다른 쪽 구석에는 동생 둘이 각각 앉아서 공부를 했다. 아버지는 하루에 적어도 세 시간 이상을 자녀 교육에 할애했다. 이 때문에 사실상 그는 조금도 쉴 틈이 없었다. 그가 아이들 교육을 직접 맡은 데는 철학적 이유도 있었지만 경제적 상황도 크게 작용했다. 책 살 돈도 없는 가정 형편에 가정교사를 채용한다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제임스 밀은 첫째 아들 존에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공부를 시켰다. 어린 아들은 이미 세 살 때 그리스어를 배워야 했다. 아버지가 만든 단어장을 외우는 것으로 교육이 시작되었다. 여덟 살 때는 라틴어를 배우기 시작했다. 《이솝 우화집》이 그가 맨 처음 읽은 그리스어 책이었다. 존은 일곱 살 때 《에우티프론》에서 《테아이테토스》에 이르기까지 플라톤의 초기 대화편 6편을 읽었다. 열두 살부터는 논리학을 공부하면서 플라톤의 주요 저작, 특히 《고르기아스》, 《프로타고라스》, 《국가》를 읽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역사와 철학 책을 많이 읽혔다. 산수, 기하학, 대수학, 미분학 등도 가르쳤다. 열세 살 때는 경제학 전 과정을 공부하였다. 아버지는 절친한 벗 리카도가 막 보내준 그의 새 책을 존에게 읽게 한 뒤, 애덤 스미스와 비교해서 그의 장점이 무엇인지 철저히 깨닫게 해주었다. 존은 나중에는 아버지의 지도로 분석심리학도 공부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존의 머리에 각종 지식이 차곡차곡 쌓여갔다.

제임스 밀의 교육 방법은 특이했다. 그는 주입식 교육은 철저히 피했다. 무엇이든 생각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들 혼자 힘으로 풀게 했다. 존이 오랜 고생 끝에 어느 정도 이해하고 나면 비로소 아버지가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었다. 따라서 존은 어렸을 때부터 혼자 사색하는 일에 익숙했다. 그는 보통은 아버지의 견해를 표준으로 삼았지만, 몇 가지 점에서는 자기 생각이 옳다고 고집을 부려 끝내 아버지의 생각을 바꾸게 했다.

아버지는 아들이 예능 방면에서는 좀 뒤떨어져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공부하는 습관이 중단되거나 게으름에 빠지지 않도록 노는 날을 일절 허락하지 않았다. 또한 아들이 세상의 그릇된 풍조에 물들까 봐 다른 소년들과 많이 어울리지 못하게 했다. 동무가 없었기 때문에 존의 오락은 언제나 혼자 하는 것이었다. 그에게는 장난감은커녕 어린아이가 볼만한 책도 거의 없었다. 《로빈슨 크루소》 정도가 있었을 뿐이라, 존은 그 책을 아주 즐겁게 몇 번이고 읽었다.

존은 열네 살 되던 해에 프랑스로 잠시 ‘유학’을 갔다. 벤담의 동생(새뮤얼 벤담 Samuel Bentham 경) 집으로 가서 6개월 정도 머물 예정이었는데 1년으로 늘어났다. 프랑스에서 존은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내 자신이 잠시도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

는다고 안심시켰다. 그의 하루 일정은 이랬다.

5시 기상, 강에 나가 8시까지 수영, 9시 반까지 프랑스어 교습, 10시까지 아침 식사, 10시 반까지 노래 연습, 10시 반부터 2시까지 프랑스어●희랍어●라틴어●수학●논리학●경제학 등 공부, 2시부터 4시까지 피아노 교습, 4시부터 5시까지 저녁 식사, 6시까지 승마, 7시까지 펜싱, 8시 반까지 댄스 레슨, 9시까지 차 마시기…….

열다섯 살 존 스튜어트 밀의 프랑스 생활이었다. 그는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잤고, 분 단위로 시간을 쪼개 활용했다.

그가 1821년 귀국하자 후원자인 존 스튜어트 경이 그를 케임브리지 대학에 보내라고 500파운드를 유산으로 남겼다. 케임브리지 대학의 한 교수도 그의 진학을 강권했다. 그러나 아버지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존이 이미 대학에서 배울 수 있는 것 이상의 지식을 습득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존 스튜어트 밀은 열일곱 살 되던 1823년에 아버지의 도움으로 동인도회사에 취직했다. 존은 직장인이 되면서 ‘아버지 학교’를 졸업했다. 이제 독립적이고 독창적인 사상가로 출발하게 된 것이다. 존은 아버지 품을 떠났지만 아버지가 심어준 정신적 습관의 틀은 일생 동안 바꾸지 않았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어중간히 해결해놓고 완전히 해결한 양 생각하지 말 것, 전체를 다 이해하기 전까지는 그 어떤 부분도 완전히 이해했다고 결코 생각하지 말 것.” 그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소중한 유산을 늘 소중하게 간직하고 살았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헌신을 무척 고마워했지만 생각은 아버지와 달랐다.

2) 토크빌: 소리 없이 피는 꽃

토크빌은 썩 좋지 못한 교육 여건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심신이 쇠약한 어머니는 따로 파리에 거처를 마련해 머물렀고, 막내아들 토크빌은 아버지의 근무지로 여기저기 쫓아다녀야 했다. 게다가 토크빌 스스로가 예민했고 튼실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가 우울하거나 외롭게 유년 시절을 보낸 것은 결코 아니었다. 그의 옆에는 부모 노릇을 대신해주는 늙은 가정교사 르죄르 신부Abbé Louis Leseur(1751~1831)가 있었다. 르죄르 신부는 토크빌에게 각별한 애정을 쏟았다. 그가 “장차 현명한 행정가나 뛰어난 웅변가 또는 유명한 외교관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토크빌은 그에게 읽기, 쓰기, 라틴어, 고전을 배웠다. 신부는 엄격한 신앙생활을 추구한 것으로 미루어 안센주의에 공감했던 것 같다. 그가 토크빌의 신앙에 큰 영향을 끼쳤음은 물론이다. 신부는 어린 토크빌의 인생에서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토크빌은 한때 케르고를레의 영향으로 군인이 될 생각을 했다. 그래서 1823년 무렵 생시르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수학 공부를 했다. 그러나 르죄르 신부가 “저런 두뇌에다 군모를 씌운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극력 반대했다. 그는 케르고를레에게 “너나 잘하라”고 야단을 쳤다.

신부는 때로 너무 구식인데다 아이들을 버릇없이 길렀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아저씨였던 샤토브리앙은 언젠가 토크빌이 너무 응석받이 유년 시절을 보냈다면서 신부에게 화살을 겨누기도 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 예민한 아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더 많이 놀았을지는 몰라도 신부가 그의 유년 교육을 소홀히 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학교생활◇

토크빌은 열여섯 살 때 처음 학교에 들어갔다. 메츠에 있는 고등학교였다. 이 학교는 당시 지역 명문으로, 파리에공대학Ecole polytechnique 입학 준비 학교로도 이름이 높았다. 학교에 들어간 것은 그의 인생에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그동안 귀족 사회의 폐쇄적인 분위기에 갇혀 있다가 비로소 친구들을 스스로 선택해 사귀게 되었기 때문이다. 르죈르 신부는 그가 동성애 분위기에 휩쓸릴까 봐 염려하기도 했다.

이 학교는 과학과 문학 강의를 수준급이었다. 그러나 토크빌이 정확하게 무엇을 배웠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수사학과 철학을 열심히 들은 흔적은 남아 있다. 영어 과목은 없었다. 그러나 신부의 편지를 보면 그가 영어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던 것 같다.

토크빌이 젊어서 어떤 책을 읽었는지는 잘 알 수 없다. 어려서 쓴 글도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봐서 그가 늦된 아이였을 가능성도 있다. 토크빌은 여느 천재들과는 달리 조속함과 관련된 일화를 남기지 않았다. 그는 학교에 들어가서 비로소 날개를 펴기 시작한 듯하다. 그는 책을 한번 잡으면 파고들며 깊이 숙고했다. 심심풀이로 설렁설렁 읽지 않았다.

그는 문학, 미술, 음악 등 프랑스의 예술이 꽃피던 시기를 살았지만, 미술 말고는 예술을 별로 즐기지 않았다. 토크빌은 나이 들어 시니어와 나눈 대화에서 라신을 제외 한 다른 시인들은 낮게 평가했다. “프랑스 시 중에서 읽을 만한 것이라고는 세련된 형식의 오락적인 것뿐”이라고 냉소를 보냈다. 젊었을 때는 한동안 라마르틴의 작품에 흥미를 느꼈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않았다. 그는 소설을 안 좋아했다. 가공의 감정에 휘말려들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우울한 결말의 소설은 특히 싫어했다. “무엇 때문에 사서 그런 고통스러운 감정에 빠져들려 하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토크빌의 성장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 하나 있었다. 열여섯 살의 토크빌은 아버지의 서재에서 “보편적 의심”의 바다에 빠졌다. 이 “젊은 시절의 한 사건”은 그의 인생에 깊은 자국을 남겼고, 그의 정치 이론에서도 결정적 의미를 지니게 된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 소년 토크빌은 집안의 전통에 따라 가톨릭을 충실히 받아들였다. 이 세상에 분명한 진리가 있다고 믿었다. 조심스럽게 세상을 들여다보면 진리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의심’의 물결에 휩쓸린 뒤 모든 것이 달라졌다. 현실에 부딪쳐보니 온통 설명되지 않는 의심만 가득했다. 진리를 잃은 뒤 그는 극도의 혼란을 겪어야 했다. 토크빌의 인생에서 제일 불행한 순간이었다.

◇역사 공부◇

토크빌은 어려서부터 정치의 길에 관심이 있었다. 뛰어난 웅변가였다 정치 지도자가 되고 싶었다. 그러나 토크빌이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때, 정치는 가능한 선택지가 아니었다. 당시에는 선거법상 40세까지는 피선거권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일단 법조계로 진로를 잡았다. 그 분야가 “자신에게 진실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전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곳으로 보였다. 토크빌은 1823년 파리에서 법학 공부를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법학 공부에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그에게는 교과목이 너무 무미건조했다. 성적이 좋을 리가 없었다. 그럭저럭 과정을 마치고 라틴어와 프랑스로 두 편의 졸업 논문을 썼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장차 《미국의 민주주의》를 쓸 위대한 저자의 면모는 보이지 않았다.

토크빌은 1827년에 베르사유 법원의 심의관 juge-auditeur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었는데, 이 무렵 그는 비로소 공부다운 공부를 했다. 역사 공부를 시작한 것이다. 베르사유에서 사귀기 시작한 보몽과 같이 책을 읽고 토론했다. 영국사에 관한 책을 읽었고, 프랑스 혁명 등 프랑스 역사도 집중 공부했다. 그는 1829년 보몽에게 편지를 보내 “우리가 정치를 하려면 인간의 역사, 특히 바로 앞선 세대의 역사를 알아야 해. 역사 일반(통사)을 공부하면 무엇보다 인간의 삶 전반에 대한 생각의 큰 틀을 확립할 수 있지”라고 말했다.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 역사를 공부한다는 것이었다.

두 사람은 역사 공부를 하는 동안 당대의 프랑스 대표 지성인 기조(Guizot)에게 매료되었다. 그들은 1828년에 기조의 ‘유럽 문명사’ 강좌를 열심히 들었다. 1829년 12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 계속된 ‘프랑스 문명사’도 수강했다. 이 무렵 토크빌이 기록한 강좌 노트에는 그가 열심히 공부한 흔적이 남아 있다. 토크빌은 1829년 8월에 보몽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번 겨울에 그 강좌를 다시 읽자. 기조가 생각을 풀어내는 방법이나 그의 언어의 정교함은 정말 탁월하다”라며 기조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털어놓았다.

토크빌은 다른 사람의 책을 잘 안 읽었다. 자신의 독창성에 집착한 나머지 아무 책이나 읽지 않았다. 책을 고를 때 매우 신경을 많이 썼다. 또한 다른 사람의 글을 잘 인용하지도 않았다. 인용해놓고 그 출처를 잘 안 밝히는 경우도 많았다. 자존심 때문이기는 했지만, 요즘 기준으로 보면 분명 표절에 해당하는 행위였다. 그런 토크빌이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사상가가 둘 있었다. 파스칼과 루소다. 그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파스칼과 루소의 글을 읽는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몽테스키외의 영향도 많이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대해서는 해석이 갈린다.

4. 문제의식

1) 밀: ‘사통발달’ 지식인

밀은 참으로 여러 분야에 걸쳐 많은 글을 썼다. 논리학에서 경제학을 거쳐 정치학, 윤리학, 종교론 등 오늘날의 기준으로 인문●사회학 거의 모든 분야가 그의 관심 대상이었다. 뿐만 아니다. 밀은 식물 채집에 열중한 끝에 식물학 전문 잡지에 글을 실는 ‘영광’도 누릴 수 있었다. 한마디로 그는 ‘르네상스형 지식인’의 전형에 가까웠다.²⁾ 밀이 처음 이론적 논문을 쓴 것은 16세 때인 1822년 여름이었다. 이 글에서 소년 밀은 귀족주의적 편견에 대해 맹렬한 공격을 퍼부었다. 1823년 벤담과 제임스 밀은 중산층 독자를 겨냥해 개혁 성향의 《웨스트민스터 평론》을 창간했는데, 존은 이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존은 1829년과 1830년에 걸쳐 “정치경제학의 어려운 문제들Essays on Some Unsettled Questions of Political Economy”이라는 제목으로 5편의 논문을 썼다. 그는 이 글들을 모아 책으로 내기 위해 출판사에 보냈지만 거절당했다. 《정치경제학의 어려운 문제들》은 밀이 학자로서의 위치를 굳힌 뒤인 1844년에야 출판되었다.

◇《논리학 체계》◇

밀은 첫 저서인 《논리학 체계A System of Logic》를 1830년 그의 나이 스물네 살 때 처음 구상한 이래 13년이나 걸려 완성했다. 밀은 1840년 가을에 초고를 완성한 뒤 한동안 묵혀두었다가 다음 해 4월부터 연말까지 처음부터 전부 다시 썼다.

밀은 《논리학 체계》에서 세상을 개혁할 보다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해답을 제시하고 싶었다. 그의 생각에 사회 진보를 위해 당장 필요한 조치들을 탐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했다. 문제의 본질을 파고들기 위해서는 ‘생각의 이론’ 그 자체를 다룰 필요가 있었다. 밀은 도덕과학이 비록 혼란스럽고 부정확하지만 모든 물리과학을 뛰어넘는 궁극적 과학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싶었다. 도덕과학을 인과율 위에 정립하면 언젠가는 인간이 자신의 운명을 통제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믿었다.

밀은 이 책에서 당시 철학계를 지배하던 선형적 a priori 인식론을 비판하고 이를 극

2) 밀은 정신 수양이 행복의 요체라면서 교양의 연마를 강조했다. 그는 “지식의 원천에 대해 마음이 열려 있고, 어느 정도 정신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만큼 교육을 받은 사람”이면 다 교양인으로 불릴 수 있다고 보았다. 꼭 철학자가 되라고 주문한 것은 아니다(공리주의, 36쪽). 이와 관련해, 밀이 1867년 세인트앤드루스 대학의 명예총장에 취임하며 학생들에게 권면한 말을 음미해보는 것이 좋겠다(당시 영국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투표를 통해 유명 인사를 명예총장으로 초빙하는 관행이 있었다). 밀은 우선 대학이 “숙련된 법률가, 의사, 기술자의 양성이 아니라 유능한 교양인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점차 전문화, 세분화되는 현대 사회의 경향을 인지하면서도, “어느 하나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나머지 전체에 무지한 것이 불가피하다면” 그런 지식이 인간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다른 것은 다 배제한 채 오직 한 분야만 파고들면 사람의 마음이 편협해지고 왜곡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걱정했다. 밀은 자기가 직업으로 삼는 분야에 대해 완벽한 지식을 가지면서 동시에 인간 삶의 모든 부분을 어느 정도는 알아야 교양인이라는 말에 부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복합 학설의 기초를 세우려 했다. 밀은 모든 지식이 경험에서 오며 도덕적●지적 성질이 주로 관념 연합에 의해 정해진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는 진리가 관찰과 경험을 떠나 직관이나 의식에 의해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은 그릇된 생각이고, 이것이 당시 철학을 잘못된 길로 이끌고 있다는 것을 논증하려 했다.

직관주의는 윤리적 판단의 근거로 제1원칙의 존재를 강조한다. 인간의 타고난 도덕적 본능이나 감각, 능력이 제1원칙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직관주의는 그것의 기초가 될 선형적 원리들을 구체적으로 논증하지 못한다. 이 원칙을 직접적으로 증명할 길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직관주의자들은 기본 원칙이 그 자체로 자명하기 때문에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다든가, 아니면 그 원칙을 거부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inconceivable는 논리로써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하려 한다. 밀은 이런 직관주의를 비판하며, 사회과학의 지식은 선형적인 추론이 사후적인 관찰의 결과와 부합될 때 성립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리주의를 통해 직관주의적 도덕관의 문제점을 극복해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효용 원칙이 도덕 이론의 궁극적 기준이 된다면 공리주의가 직관주의보다 합리적●객관적 대안이 된다고 믿었다.

밀이 직관주의를 맹렬하게 비난한 또 다른 이유는 그것이 당시 사회의 윤리적 편견이나 모순을 정당화하는 데 악용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밀은 어려서부터 반동적 가치일수록 손쉬운 일반 가정을 토대로 한다는 것을 눈여겨봤다. 누구든지 일반 법칙을 발견, 정립하는 힘을 가지면 인간의 생각 구조 전체를 통제, 규정할 수 있다. 당시 기득권 계층이 그랬다. 보수적인 지식 계급은 거창하지만 명료하게 입증할 수 없는 주장들로부터 자기들의 목적에 가장 잘 부합하는 결론을 끄집어내는 데 탁월했다. 이때 직관주의가 동원됐다. 그들은 이성의 힘으로 설명하기보다 직관을 내세워 보편 진리로 포장하곤 했다.

따라서 구시대를 개혁하고자 하는 밀로서는 직관주의적 인식론으로 무장한 세력들과 힘든 싸움을 벌여나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경험과 관찰이라는 ‘객관적’ 기준을 받아들이지 않는 직관주의자들의 논리를 수용하게 되면, 자유도 다수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정한 기준에 의해 왜곡,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 교양 없는 다수의 호불호가 도덕의 기준이 되는 상황이 도래한다면 자유는 심대한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 분명했다. 밀이 직관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애쓴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1841년 연말, 밀은 드디어 《논리학 체계》를 완성하고 부푼 마음으로 출판사에 보냈다. 그런데 원고를 받은 출판사가 오래 붙들고 있다가 분명하지 않은 이유를 대며 출판을 거절했다. 그 정도 이유라면 애당초 거절하면 됐을 일이었다. 밀은 다른 출판사에 원고를 맡겼고 이듬해 1843년 봄 《논리학 체계》가 두 권의 책으로 나왔다. 그런데 이 책이 예상 밖의 성공을 거두었다. 이 책의 성공은 밀 자신도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었다. 이렇게 추상적인 문제에 대한 저술은 오로지 학구적인 사람들이나 읽을 텐데, 영국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주로 존재론적이고 본유 관념을 내세우는 반대쪽 학파

에 기울어 있었다. 밀은 그저 보다 나은 철학의 전통을 이어간다는 보람을 느끼고 싶었을 뿐, 더 이상의 기대는 접고 있었다. 그런데 이 책은 밀 생전에 7판이나 인쇄되었다. 《논리학 체계》의 성공으로 밀은 대사상가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

◇《정치경제학 원리》◇

밀의 그다음 주요 저서인 《정치경제학 원리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는 1848년 4월에 출판되었다. 밀은 이 책을 《논리학 체계》의 후속편으로 생각했다. 첫 책이 총체적 지식 이론을 다루었다면 두 번째 책은 인간의 활동 영역 중 하나인 정치경제학을 세밀하게 탐구했다. 두 권으로 나온 이 책 역시 대성공을 거두었다. 밀은 자신의 책이 좋은 반응을 얻게 된 것은 경제학을 고립된 학문이 아니라 사회철학의 한 분과로 다루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추상적 학술서로 만들지 않고 응용 성격을 가미한 것이 대중의 마음을 끌었다는 것이다.

◇《자유론》◇

밀의 모든 저서 가운데 그가 가장 세심하게 쓰고 가장 철저히 수정한 것이 바로 《자유론》이다. 밀은 이 책이 《논리학 체계》 말고는 자신이 쓴 어느 저술보다 더 오랜 생명력을 지니게 될 것이라고 믿었다.

《자유론》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개인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밀은 이것이 ‘자유’의 기본 원리라고 했다. 《자유론》은 사실 자유의 이름으로 개별성individuality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책이다. 전통과 관습, 여론 등 개인 고유의 포부와 색깔을 압살하는 ‘다수의 횡포’에 대한 염려가 《자유론》을 관통하는 근본 문제의식이다. 흔히 밀을 자유의 수호성인으로 간주하지만, 그는 이 책에서 인간이 지향해야 할 가치(자기 발전)와 남에 대한 배려(사회성)라는 양대 축을 바탕으로 ‘품격 있는 자유’를 지향한다. 일찍이 플라톤이 질타했듯이, 밀 역시 ‘마음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부르지 않는다.

◇《대의정부론》과 《공리주의》◇

1861년에는 밀의 “성숙한” 정치 이론을 담은 《대의정부론》이 출판되었다. 밀은 이 책에서 대의민주주의가 “가장 이상적인 정부 형태”라고 전제한다.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환상을 비판하면서 토론과 숙의를 통한 질 높은 민주주의를 지향한다. 밀은 대의민주주의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계급 입법class legislation을 반드시 차단해야 한다면서 사려 깊은 분별을 촉구한다. 그는 교육 수준이 높은 엘리트가 상대적으로 발언권을 더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비례대표제, 차등 투표제 등을 주장했다. 밀은 대중 민주주의의 취약점을 보완할 자신의 이런 구상에다 “숙련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후 밀의 관심은 사회 윤리 쪽에 집중된다. 그는 해릿엇의 생애 마지막 무렵에 쓴 미발표 논문들에다 몇몇 다른 글을 더해서 1863년에 《공리주의》를 펴냈다. 이 책은

질적●양적 쾌락을 구분함으로써 공리주의 윤리학을 벤담주의를 넘어 보다 원숙한 경지로 끌어올린 것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공리주의》가 고통과 쾌락과 효용만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이 책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참된 행복의 비결임을 분명히 한다. 공리주의자 밀이 지적 교양보다 사회성sociality을 먼저 내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자서전》◇

1869년에 나온 《여성의 종속The Subjection of Women》은 남녀평등을 주장해온 밀의 생각을 잘 담고 있다. 밀의 《자서전Autobiography》은 그의 저술 가운데 무계가 결코 만만치 않은 책이다. 밀은 일찍부터 해리엇과 함께 자신들의 정신적●지적 삶의 궤적을 기록할 필요성을 느꼈다. 그는 이 작업을 “신성한 의무”로까지 여겼다. 두 사람은 1854년에 일단 초고를 끝냈다. 그러나 그것은 1840년까지의 ‘젊은 밀’만을 기록한 것이어서 온전한 의미의 자서전이 될 수 없었다. 밀은 해리엇이 유명을 달리 한 뒤 10년 이상 시간을 묵혔다가 1870년에 자신의 생애 후반부를 담은 결론 부분을 완성했다. 1873년 밀이 세상을 떠난 직후 출판된 《자서전》은 밀의 정신적 성장 과정을 세밀하게 기록한 흥미로운 책이다. 그는 이 책에서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교육의 내용을 가감 없이 보여준다. 그가 해리엇을 만나 그녀를 반려자로 승화시켜나가는 과정도 기록했다. 또한 이 책에는 밀이 만나 교유한 쟁쟁한 인사들의 여러 면모와 그가 정치 현장에 참여하게 된 배경 등도 담겨 있다. 인간 존 스투어트 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

그 외에 《종교론》(1874)과 《사회주의론》(1879)이 그의 사후에 출간되었다. 《종교론》은 무신론자로 알려진 밀의 또 다른 측면을 보여주고, 《사회주의론》은 그가 사회주의의 윤리적 목표에 경도된 이유를 짐작하는 데 도움을 준다.

밀은 이상에서 언급되지 않은 수많은 다른 저술도 남겼다. 1991년 캐나다의 토론토 대학 출판부가 총33권의 <<존 스투어트 밀 전집Collected Works of John Stuart Mill>>을 완간했다. 이 전집에는 그의 저서뿐만 아니라 그의 편지와 연설문, 심지어 어린 시절의 학습 노트까지 포함돼 있다. 이 전집의 제목만 일별해도 밀이 얼마나 위대한 저술가인지 분명해진다.³⁾

2) 토크빌: 《미국의 민주주의》

토크빌은 ‘프랑스의 지식인’이었다. 평등에 대한 집착이 지나치면 자유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는 이점을 무엇보다 우려했다. 그래서 “민주국가의 인민이 어떻게 하면 자

3) ‘[Online Library of Liberty : A collection of scholarly works about individual liberty and free markets](#)’에 들어가면 밀의 모든 저작을 자유롭게 들여다볼 수 있다.

유를 잃지 않을 수 있는가?”라는 화두를 붙들고 씨름했다. 자유와 민주주의 ‘둘 다’ 발전하고 살아남는 방법을 찾는데 온 힘을 기울였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평등과 더불어 자유도 잘 지켜내고 있었다. 토크빌은 그 비결을 알고 싶었다. 그래서 그는 신생 민주국가 미국의 성공사례를 주목했다. 《미국의 민주주의》를 쓰면서도 그의 눈은 항상 자신의 조국을 향하고 있었던 것이다.

토크빌의 저작 목록은 단출하다. 출판된 저서는 몇 권 안 된다. 불후의 명작 《미국의 민주주의》는 1835년에 1권이 출간되고 5년 뒤인 1840년에 후속편이 출간되었다. 1848년 2월 혁명을 생생하게 기록한 《회상록》은 그가 정계에서 물러난 뒤인 1850년에 심심풀이로 쓴 책이다. 혁명의 진행 상황과 역사적 인물들의 민낯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어 단순한 ‘지적 유희’로 치부하기에는 사료적 가치가 너무 크다. 1856년에는 그의 마지막 저서인 《앙시앵 레짐과 프랑스 혁명》이 나왔다. 1789년 프랑스 혁명의 발발 원인과 정치사적 의미를 토크빌 특유의 시각으로 풀어낸 책이다.

토크빌은 ‘서한書翰 정치’에도 일가견이 있었다. 그 시대의 지식인들이 그랬듯이 토크빌도 수많은 편지를 썼는데, 시국에 대한 자신의 재단裁斷과 처방을 그 속에 담았다. 편지 묶음이 워낙 방대해서 그의 전집 출간은 아직도 ‘현재 진행 중’이다.

◇미국 탐사◇

토크빌은 공직자로서 1830년 8월 새 정권에 충성 서약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집안 분위기로 보아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니었는데, 이때 그는 공직을 그만둘 생각도 했다. 그 참에 오랫동안 꿈꿔온 일을 결행해버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내가 공직을 그만두고 사인私人으로 돌아간다면 몇 년이고 여행자로서 거친 세월을 보내고 싶어. 나는 오래전부터 북미 대륙 여행에 대한 소망을 키워왔거든. 그 나라로 가서 그 공화국이 얼마나 대단한지 확인하고 싶어.

그뿐 아니다. 여행을 통해 미국 전문가가 되면 시중의 장삼이사張三李四와 구분되는 위상을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 또 일이 잘되면 책을 하나 써서 유력 정당의 관심을 사게 될 것이다.

토크빌이 미국행을 열망한 데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다. 1835년 《미국의 민주주의》 1권이 출판된 직후 친구 케르고를레에게 밝혔듯이, 그는 이 책에 드러난 생각의 큰 틀을 이미 10년 전부터 품고 있었다. 토크빌이 미국에 간 것은 이런 자신의 생각을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싶어서였다. 미국의 교도행정을 조사한다고 했지만, 그것은 “미국에 들어가기 위한 여권에 불과했다.” “토크빌은 무언가 배우기에 앞서 먼저 스스로 생각했다”는 말이 나올 법도 한 것이다. 이미 자신이 생각하고 있던 틀 속에 들어 있지 않은 것은 결코 ‘배우지’ 않는 지식인의 극단적 예라고나 할까.

《미국의 민주주의》는 9개월 10일 동안 미국의 구석구석을 찾아가 탐문한 현장 조사

의 결실이다. 토크빌은 미국 여행을 준비하면서 다섯 켈레의 구두와 장화를 샀다. 굳이 그런 것을 장만한 것을 보면 미국의 문물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다. 토크빌은 1831년 4월 2일에 보몽과 함께 고향 인근의 항구 도시 르아브르에서 미국행 배를 탔다. 배 이름도 ‘르아브르’였다.

토크빌은 미국에 머무는 동안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았다. 미국으로 오는 배 안에서 실천했던 일정을 그대로 반복했다.⁴⁾ 두 친구는 프랑스를 떠나기 전부터 시간을 아껴 면담 조사와 문헌 공부에 집중하기로 다짐했는데 과연 이런 ‘수도승 생활’을 제대로 해냈다.

토크빌은 미국으로 떠나기 전 ‘배가 난파하거나 인디언들의 공격을 받는 등’의 위험을 충분히 각오하고 있었다. 실제로 그들은 걸거나 말을 타고서 거친 황무지를 끝없이 통과해야 했고 추운 겨울날 배가 모래톱을 받는 바람에 이틀간 꼬박 배에 갇혀 있기도 했다. 토크빌이 물에 빠지는 아찔한 사고도 있었다.

1832년 2월 20일, 토크빌은 갈 때와 같은 항로로 귀국 길에 올랐다.

◇집필◇

토크빌은 미국에서 돌아온 뒤 곧장 《미국의 민주주의》에 집중할 수 없었다. 그는 미국 여행에서 돌아온 지 18개월 후인 1833년 9월에 《미국의 민주주의》를 쓰기 시작했다. 파리에 있는 부모의 집 다락방에 칩거해 글 쓰는 일에 전념했다.

여기 오자마자 미국에 대해 미친 듯이 쓰기 시작했다. 최대한 집중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 정신을 다해서 일을 했다. 저녁 시간에는 마리를 만나러 외출해서 바람을 쐐었다. 다음 날 또 무서울 정도로 일을 했다. 영국 여행에서 돌아온 이후 나에게서는 책과 마리 돌밖에 없었다.

그는 우선 미국 여행 중에 만든 노트들을 재검토한 뒤, 전체 내용을 64개 항목으로 나누어 색인을 작성했다. 그런 뒤 미국인의 생활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많은 책을 새로 읽었다. 실질적으로 ‘제2의 미국 여행’을 다녀온 셈이다. 1834년 1월에는 보다 효율적인 독서를 위해 한 젊은 미국인(시아도어 세지윅Theodore Sedgwick)을 고용했다. 토크빌이 미국 여행 중에 만났던 이 청년이 마침 파리에 체류하고 있었다. 토크빌은 미국 민주주의에 관해 그와 토론을 하는 한편, 그로 하여금 자신의 집필에 도움이 될 만한 책들을 요약, 정리하게 했다. 토크빌은 동시에 미국 공사관에 연락해서 미국 법에 관한 공부를 도와줄 젊은이를 찾았다. 다행히 프랑스 주재 미국 대사의 임시 비서로 있던 22세 청년(프랜시스 리핏Francis Lippitt)과 줄이 달았다. 그 청년은 9시부터 5시까지 3~4개월 동안 일을 하며 각종 조약과 시사 논문을 프랑스어로

4) 보몽이 동생에게 보낸 편지에 그들의 하루 일정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다. “우리는 언제나 아침 일찍 일어난다. 8시에 아침 식사를 하고 나면 프랑스, 영국, 미국 신문이 비치된 인근 공립 도서관에 가서 인구, 행정 기관, 기타 우리가 관심을 두는 정치 문제에 관한 각종 통계나 자료를 조사한다. 시간만 나면 종이 위에다 우리가 목격한 것과 그것에 대한 우리의 소감을 기록한다. 스스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식으로 장차 우리를 유명하게 만들 위대한 저작의 토대를 작성한다. 저녁 식사 시간을 알리는 벨이 울릴 때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의 절반도 못 끝낸 경우가 대부분이다.”

번역, 요약해주었다.

이렇게 공부한 내용을 모두 담다 보니 각주가 엄청나게 많아졌다. 그러나 나중에 출판 과정에서 대부분의 각주가 삭제되고 책에는 일부만 간략하게 실렸다. 토크빌 자신이 미국에서 만든 노트가 책 내용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집중적인 노력 끝에 글을 쓰기 시작한 지 1년도 안 돼 1834년 8월 초고가 완성되었다. 보몽은 물론 아버지, 형들도 원고를 세심하게 읽고 의견을 내놓았다. 그 모든 지적을 글에 반영하느라 시간이 걸렸다.

《미국의 민주주의》는 제작 과정에서부터 돌풍을 일으켰다. 우선 인쇄공들이 그의 책에 비상한 흥미를 느꼈다. 감독부터 교정공, 식자공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큰 관심을 보였고 대단한 열정을 기울였다. 그들은 위대한 책을 만든다는 사실에 크게 자부심을 느끼는 모습이었다. 토크빌은 전율을 느꼈다. 1835년 1월 23일 마침내 책이 나왔다. 그 일부는 영어판도 동시에 출간되었다. 번역은 22세의 영국 청년 헨리 리브Henry Reeve가 맡았다.

◇유럽 지성계 평정◇

《미국의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를 바라보는 토크빌의 복합적 시선을 명징明澄하게 담고 있다. 토크빌은 민주주의를 ‘조건의 평등’으로 규정했다. 과거의 신분 사회와는 달리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조건이 평등한 사회 상태를 민주주의라고 부른 것이다. 그는 한편으로는 위대함과 고상함에 무관심한 평등 사회에 대한 두려움을 토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사회로의 이행이 ‘신의 섭리’라고 인정했다. 그렇다면 그에게는 다른 선택이 있을 수 없었다. ‘새로운 정치학’으로 민주주의를 순화함으로써 평등 사회가 초래할 수 있는 재앙을 최소화하는 것이 그에게 주어진 시대적 임무였다. 다행히 토크빌은 미국 사회를 깊숙이 관찰함으로써 그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평등 사회의 주민들이 참여를 늘려나감으로써 자유의 미학을 체감할 수 있고 그를 통해 평등 사회의 치명적 결함인 물질 중심적 개인주의를 극복할 수 있다는 주장을 《미국의 민주주의》를 통해 생동감 넘치게 펼쳐냈다. 미국을 배경으로 민주주의라는 낯선 괴물을 정면으로 해부한 이 책은 유럽의 지성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었다.

책은 출판계를 강타했다. 당초 출판사는 이 책의 미래에 자신이 없었다. 그래서 1쇄를 조금만(500부 또는 700부) 찍었다. 그러나 곧 주문이 밀려들어 6월에 2쇄, 연말에 3쇄를 찍어야 했다. 다음 해에는 4쇄와 5쇄를 찍었다. 1840년에는 8쇄에 이르렀다. 이후 그는 출판사를 바꿨다. 이전 출판사는 너무 소심하고 소극적이었다. 새로 계약한 출판사의 사장은 오랜 공화주의자인데다 사업 수완도 훨씬 대담했다. 보급판도 4,000부를 발간했고 반응이 좋자 그해 안에 2쇄를 찍었다.

《미국의 민주주의》는 출간되자마자 토크빌의 운명을 바꾸었다. 그는 그 즉시 유럽의 대표 지성이 되었다. 프랑스는 물론 유럽 대륙과 미국에까지 그의 이름이 알려졌다.

그 파장이 너무 커서 토크빌 본인도 놀랄 정도였다. 토크빌은 책의 성공에 힘입어 오랜 숙원인 정계진출을 본격적으로 도모하기 시작했다. 1830년 혁명 이후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30세가 된 그도 이제 출마 자격을 얻었다. 토크빌은 지방선거와 하원선거 양쪽을 저울질 하면서 기회를 엿보았다.

그 와중에 그는 학문의 전당인 프랑스 학술원에 이름을 올리고 싶었다. 학술원 회원이 되는 것은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의욕을 낼만한 일이었다. 뿐만 아니다. 학술원 회원이 되면 명예도 얻지만, 장차 정계진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주변 친구들의 권유로 1838년 입회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도덕●정치과학원의 문부터 먼저 두드렸다. 이어서 1841년 36세의 젊은 나이에 학술원에 들어갈 수 있었다. 프랑스 최고 지성의 반열에 오르는 영광을 누린 것이다.

◇《미국의 민주주의》 2권◇

토크빌은 1835년 10월에 결혼식을 올리고 곧 《미국의 민주주의》 2권을 쓰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파리를 떠나 토크빌에 칩거했다. 1권을 쓸 때와 마찬가지로 일단 다루어야 할 주제들의 목록을 나열하는 것으로 작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2권은 여러 사정으로 진척이 더뎠다. 1권을 쓸 때는 바깥세상과 단절한 채 파리의 다락방에서 조사와 집필에 몰두할 수 있었다. 그 덕분에 1년도 안 돼 글이 완성되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온갖 방해 요인이 다 끼어들었다. 토크빌은 1836년 가을부터 본격적으로 작업에 매달렸다. 더 이상 잘할 수 없을 만큼 시간과 머리를 쏟아 부었다. 1836년 11월 무렵에는 하루 일곱 시간씩 규칙적으로 작업했다는 기록이 있다. 책 쓰는 일에 즐겁게 매달렸다. 그는 리브에게 자랑스럽게 말했다.

지금처럼 열정적으로 일한 적이 없었다. 나는 밤낮으로 이 일만 생각한다. 내가 사회생활과 완전히 담을 쌓고 지내는 것이 대견스럽다. 지금 쓰고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 과거에 이미 여러 경로로 다루었는데도 여전히 전혀 새로운 문제의식을 갖게 되는 것이 신기하기만 하다.

그러나 진도가 잘 나가지 않았다. 그는 보몽과 케르고를레가 옆에 없는 것이 너무 아쉬웠다. 그들의 지적인 자극과 조언이 그리웠다. 혼자 일을 하니 돌파구를 찾기가 어려웠다. 마침 그 무렵 밀이 파리에 와 있다는 소식을 들은 토크빌은 그에게 보지 Baugy로 와달라고 급전을 쳤다. 밀과 토론하며 막힌 것을 뚫고 싶었다. 그러나 토크빌의 편지가 도착했을 때 밀은 이미 영국으로 돌아가고 없었다.

1837년에는 잠시 선거에 기웃거리느라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다시 1839년에는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다시 본격적으로 선거 운동에 들어갔고 마침내 당선되었다. 꿈에 그리던 의사당에 들어간 것이다. 토크빌은 곧 노예제 폐지에 관한 의회 보고서를 책임 집필해야 했다. 의정 활동을 하면서 시간을 내 책을 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런저런 일로 방해를 받다 보니 1835년 11월 중순에 시작한 일이 꼬박 4년이 지나

서야 마무리되었다. 드디어 1840년 4월에 《미국의 민주주의》 2권이 출판되었다. 영어 판도 동시에 나왔다. 2권은 앞의 책보다 훨씬 짜임새 있게 구성되었다. 책의 주제가 크게 4개로 나뉘었고 이 4개의 장들이 전체적으로 논리정연하게 배열되었다.

토크빌은 《미국의 민주주의》 1권이 선풍적 인기를 얻자 여세를 몰아 2권을 썼다. 곳곳에서 응원의 박수 소리가 들렸다. 그가 책을 빨리 끝내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았다. 식자층 독자들이 누구보다도 2권의 출판을 열망했다. 출판사도 재빨리 부응했다. 1권보다 훨씬 많이 찍었다(그렇다고 보급판을 낸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막상 책이 나오자 반응이 전 같지 않았다. 책이 기대만큼 관심을 끌지 못했다. 1848년이 되어서도 초판이 다 팔리지 않았다.

《미국의 민주주의》 2권에 대한 반응이 예상과 달리 덤덤한 것은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얽힌 결과였다. 우선 책이 출판된 1840년이 문제였다. 프랑스가 영국, 러시아 등과 동방문제Eastern Question로 갈등을 빚으면서 유럽 대륙에 또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었다. 독자나 논평자 모두 국제 정세의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느라 책에 관심을 집중할 수가 없었다. 저자 토크빌에게는 큰 불운이었다. 1835년과 달리 프랑스와 미국의 관계도 좋지 못했다. 양국이 갈등을 빚었고 미국 경제가 프랑스에 악영향을 끼쳤다. 이래저래 프랑스 사람들의 미국에 대한 관심이 식으면서 《미국의 민주주의》도 5년 전과는 다른 대접을 받게 되었다.

외적인 이유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토크빌은 이제 혜성같이 등장한 신인이 아니었다. 학술원 회원으로 기성 체제의 중심부에 진입한 그가 독자들에게 5년 전과 같은 신선한 충격을 줄 수는 없었다. 가장 큰 원인은 역시 책 자체에 있었다. 일반 독자들에게는 책이 어렵게 다가왔다. 내용이 너무 심각하고 추상적이었다. 밀이 토크빌을 위로하며 말했듯이, 미덕이 약점으로 작용했다.⁵⁾

▲ 《회상록》과 《앙시앵 레짐과 프랑스 혁명》▲

토크빌은 1840년대를 바쁘게 살았다. 하원 의원으로서 정치 현장의 중심에 있었다. 잇달아 선거를 치렀고 1848년 2월 혁명을 온몸으로 맞닥뜨렸다. 그리고 그의 정치 인생을 종결시키는 루이 나폴레옹의 등장이 있었다. 토크빌은 1851년 나폴레옹의 쿠데타에 항거해 정치를 그만두었다. 그리고 향리 토크빌에 칩거하면서 ‘저술가 겸 농민’ 생활을 재연했다.

토크빌은 정계를 떠나기 직전인 1850년 7월에 시골에 묻혀 심심풀이로 《회상록》을 썼다. ‘1848년 프랑스 혁명’이라는 부제가 말해주듯, 그는 이 책에서 1848년 2월 혁

5) 밀은 1840년 12월 30일 편지에서 토크빌의 ‘상심傷心’을 다음과 같이 진심으로 어루만져주었다. “당신이 내가 쓴 서평에 흡족해했다니 얼마나 기쁘지 모르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당신 책에 대해 이런저런 논평을 하는 사람들은 그 깊은 뜻을 제대로 헤아릴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또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이 2권에 대한 대중의 반응이 1권에 비해 시원찮은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당신이 열거한 이유들도 일리가 있지만, 그보다는 2권의 내용이 대중의 눈에 생소한데다가, 인간의 본성 그 자체를 훨씬 깊숙이 파고들었기 때문에 어렵게 비친 것이 더 결정적인 이유가 됐으리라 봅니다. 지난 한 세기 동안 그 누구도 하지 못한 것을 그 책은 해냈습니다.”

명 전야에서부터 1849년 10월 30일 자신이 장관을 그만둘 때까지의 격동기를 회고했다. 2월 혁명의 진행 과정, 혁명이 휩쓸고 간 파리 시가지를 바라보는 자신의 착잡한 심경 등을 실감나게 묘사했다. 특히 혁명을 ‘진압 또는 저지’하기 위해 분투하는 토크빌의 모습은 그의 이념적 좌표를 이해하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된다. 토크빌은 이 《회상록》 집필 작업을 ‘지적 유희’라고 불렀다. 《회상록》은 남에게 보일 목적으로 쓴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생전에 이것을 출판하지 않았다. 여기서 토크빌은 자신이 대면한 역사적 인물들을 있는 그대로 직설적으로 묘사했는데, 이런 인물평도 그의 세계관을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 《회상록》은 쉽게, 재미삼아 읽을 수 있는 책이다. 그러나 담백함만큼이나 울림도 크다. 이 책은 토크빌이 세상을 뜬 지 한참 뒤인 1893년에 출판되었다.

토크빌은 정계에서 은퇴한 뒤 《앙시앵 레짐과 프랑스 혁명》을 쓰는 데 전념했다. 프랑스 대혁명은 프랑스, 아니 온 인류의 운명을 바꾸다시피 했다. 토크빌을 고민하게 했던 ‘평등한 조건’, 즉 민주주의의 뿌리도 그 혁명에서 뻗어 나왔다. 그뿐만 아니라 대혁명으로 토크빌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다. 민주주의라는 이름의 ‘광풍’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던 토크빌이었다. 그런 토크빌도 그 “위대한 혁명”을 열렬히 찬미했다. 사람들을 쫓쫓하고 비루한 일상에서 벗어나 아름답고 순수한 열정을 향해 내달릴 수 있게 해주는 그 마력에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토크빌은 “프랑스 대혁명으로 프랑스 사회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통설을 믿지 않았다. 그 혁명의 기원에 대해서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토크빌은 프랑스 사회의 모든 고질이 중앙 집권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 현상은 대혁명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었다. 대혁명 이전에 프랑스 사회는 이미 중앙 집권 체제 아래 있었다. 혁명은 그 경향을 더욱 강화했을 뿐이다. 토크빌은 이러한 관점에서 프랑스 정치사와 대혁명을 아우르는 2부작을 쓰고 싶었다. 그는 우선 대혁명의 기원을 따지는 글을 쓰기 시작했다. 이 작업이 끝나면 대혁명이 프랑스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추적할 계획이었다.

토크빌은 집요하게 사료를 뒤져 읽었다. 자신의 주장을 완벽하게 논증하고 싶었다. 이번에도 그는 고집스럽게 자기 방식으로 글을 써나갔다. 한 문제를 놓고 며칠씩 골똘히 생각했지만 단 한 구절도 글로 옮기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토크빌처럼 ‘예민한 귀’의 소유자를 만족시키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는가. 그는 한 문장을 스무 번이나 고쳐 쓰기도 했다. 친구들이 찾아오자 토크빌은 그동안 쓴 원고를 읽어주고 논평을 요구했다. 마리가 18세기 중엽 문필가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다룬 부분이 너무 단조롭고 필요 이상으로 세밀하게 묘사했다고 비판하자 그 의견을 받아들여 고치기도 했다.⁶⁾

《앙시앵 레짐과 프랑스 혁명》은 큰 성공을 거두었다. 1856년 6월 23일에 1쇄 2,200

6) 토크빌은 집필에 몰두하던 1854년 어느 하루 자신의 일상을 시니어에게 들려주었다. “5시 30분 기상, 9시 30분까지 심각하게 공부, 10시 늦은 아침 위해 옷을 갈아입고 30분 산책, 2시까지 다른 공부(요즘에는 독일어 공부), 두 시간 산책, 저녁에는 취미생활, 때로 마리 위해 큰 소리 낭독, 10시에 정확하게 취침.” 1855년 겨울에는 매일 오후 한 시간씩 눈 덮인 숲길을 걸으며 생각을 가다듬었다.

부를 찍었는데 7월 말에 이미 재고가 바닥이 났다. 2쇄도 빠르게 소진되어, 그다음 해 봄엔 남은 것이 없었다. 3쇄도 불티나게 팔렸다. 1858년 11월에 4쇄 2,000부를 찍었고, 인세로 2,500프랑이 들어왔다. 3년도 안 돼 거의 9,000부가 팔렸으니 인세도 쏠쏠해서 생활에 적잖은 도움이 되었다. 토크빌은 케르고를레에게 “숫자로 말하자면, 이 책이 《미국의 민주주의》보다 훨씬 더 성공적이다. 《양시앵 레짐과 프랑스 혁명》 1쇄의 부수가 그 책 1, 2, 3쇄를 합한 것보다 많다”고 자랑했다.

토크빌은 1856년 6월에 세 번째 영국 여행에 나섰다. 《양시앵 레짐과 프랑스 혁명》의 위력을 실감할 수 있었던 여행이었다. 그는 영국에서 극진한 환대를 받았다. 저명 인사들이 토크빌을 만나기 위해 줄을 섰다. 어느 날 파티에 갔더니 장관 여러 사람이 그의 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귀국길에는 영국 해군이 특별 제공한 군함을 타고 오는 호사를 누리기도 했다. 아침 8시에 군함이 프랑스의 항구에 도착하자 프랑스 사람들이 신기한 듯 구경하고 있었다. 토크빌은 자신이 영국 군함을 타고 왔다는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 써야 했다.

토크빌은 《양시앵 레짐과 프랑스 혁명》의 성공에 용기를 얻어 2권을 쓰는 데 힘을 모았다. 파리에 방을 얻어 지내면서 자료를 모으는 등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그런데 생각과 달리 진도가 잘 나가지 않았다. 그는 오전 내내 책상에 앉아 씨름했지만, 몇 달이 지나도 성과가 없었다. 오랫동안 외톨이로 지낸 것이 큰 타격이었다. 지금까지는 믿고 의지하는 친구 앞에서 자신의 창의적 생각을 스스럼없이 털어놓고 그들의 반응을 되새기는 소중한 과정이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친구들과 떨어져 지내고 있어서 그들의 도전적인 자극을 기대할 수가 없었다.

결정적인 것은 건강 문제였다. 그는 1858년 4월에 파리로 갔으나 위와 목이 안 좋아 금세 돌아와야 했다. 두 달 후 두 번째 각혈을 했다. 그날 이후 사실상 《양시앵 레짐과 프랑스 혁명》 2권은 접을 수밖에 없었다.

《양시앵 레짐과 프랑스 혁명》 1권이 프랑스 혁명의 발발 원인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2권에서는 그 혁명이 프랑스 사회에 끼친 영향을 추적하고 싶었다. 그가 《미국의 민주주의》 1권에 이어 2권까지 씀으로써 민주주의 이론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완결 지었듯이, 《양시앵 레짐과 프랑스 혁명》도 2부작까지 쓸 수 있었다면 혁명과 민주주의의 연결고리에 관한 그의 통찰도 한결 선명하게 드러났을 것이다.

5. 글쓰기

1) 밀, 죽음 앞에서 글쓰기

1850년대 들어 밀과 해리엇 둘 다 건강이 나빠졌다. 밀에게 둘 중 하나가 먼저 죽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엄습했다. 밀은 자기가 쓴 글이 해리엇의 손을 거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할 수도 없었다. 두 사람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밀은 그동안

계획했던 글들을 가능한 한 빨리 쓰기로 마음먹었다. 출판은 나중 문제이고 일단 초고라도 서둘러 쓰기로 했다. 《논리학 체계》와 《정치경제학 원리》가 그가 앞으로 작업할 것들의 서론 격으로서 제1원리를 담았다면, 이제 그 원리들을 일상의 다양한 실제 문제에 적용하는 중요한 과제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밀은 자신의 저술이 당장 사람들에게 큰 효용을 주지 못하더라도 전문가들이 시간을 두고 읽고 전파할 수 있게 기본 틀 위주로 쓰기로 했다.

밀은 해리엇과 함께 향후 작업 목록을 작성했다. 《자유론》, 《공리주의》, 《대의정부론》 등 그의 후기 저술 대부분이 그 목록에 들어 있었다. 그의 사후에 출판된 《사회주의론 Chapters on Socialism》과 《종교론》도 포함되었다. 밀은 1854년 2월 해리엇에게 편지를 보내 “목록에 따라 작업하는 데 2년이면 충분할 것 같다”고 자신했다. 밀은 절박한 심정으로 글을 써 나갔다. 죽음이 손을 뻗어오기 전에 얼마나 끝낼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다. 밀은 “우리가 써야 하는 것을 우리 둘이 같이 살아서 같이 작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했다. 그의 간구懇求는 헛되지 않았다.

밀의 글 쓰는 방식은 독특했다. 그는 쓰고자 하는 주제가 생기면 일단 관련된 자료들을 샅샅이 뒤져 읽으며 깊이 천착했다. 충분히 준비가 되었다 싶으면 그제야 자리에 앉아 쓰기 시작했다. 작업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불도그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절대 그냥 두지 않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다. 그리고 다시 글을 썼는데, 마음에 들 때까지 쉬지 않고 윤색했다. 언제나 적어도 두 번은 다시 고쳐 썼다.

밀은 일단 초고를 쭉 써놓은 다음 시간을 두고 손봤다. 초고를 쓸 때 일단 자기가 다루어야 할 문제를 전부 끄집어냈다. 다루어야 할 중요한 내용을 불완전하게나마 모두 종이 위에 기록해놓으면 전체적인 구상이나 표현의 자세한 부분을 고치고 다듬는 2차 작업에 힘이 덜 든다고 생각했다. 그는 처음 초고를 쓸 때 글의 배열 문제에 가장 신경을 많이 썼다. 배열이 잘못되면 사상을 연결시키는 실이 꼬이면서 생각이 올바르게 전개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밀은 일정한 정도의 ‘숙성 시간’을 둔 뒤 초고를 처음부터 전부 다시 썼다. 이때 다시 써도 더 좋아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면 그냥 원본 그대로 두었다. 그는 이렇게 두 번 쓰는 방식이 매우 유익하다고 확신했다. 처음 구상의 신선함과 힘찬 맛을 잃지 않은 채 두고두고 생각하며 손볼 수 있어서 주장과 논리가 더욱 정확하고 완전해진다는 것이었다.

밀은 무수히 많은 저술을 남겼지만 결코 전업 작가의 여유를 누리지 못했다. 그는 52세에 동인도회사를 퇴직할 때까지 오직 퇴근 후의 여가 시간이나 주말, 그리고 휴가를 이용해서 글을 쓸 수 있었다. 밀은 회사 업무를 비교적 신속하게 처리하는 편이었다. 서너 시간 정도면 하루 일을 모두 끝낼 수 있었다. 나머지 두세 시간은 방문객을 만나거나 집필하는 데 사용했다. 《논리학 체계》나 《정치경제학 원리》 같은 그의 초기 대작들의 상당 부분을 이런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썼다. 물론 여러 사람에게 편지

를 쓰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그의 일과 중 하나였다.

밀은 각종 신문이나 잡지에도 많은 글을 썼다. 그러나 그는 그런 글을 별로 좋아하지 않은 모양이다.

신문이나 잡지에 글을 써서 생활하는 것은 문학이나 사상 방면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부적절하다. 생활 방도가 불확실할 때는 양심을 가지고 글을 쓰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동시에 생활 수단으로 쓰는 글은 생명이 없을 뿐 아니라 필자 또한 최선을 다하지 못하게 된다. 팬찮은 사상을 담은 글은 쓰는 데 너무 오래 걸리고, 또 쓴다 해도 너무 늦게 세상에 알려지기 때문에 생활 수단으로서는 도움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글을 써서 생활을 도모하는 사람은 부득불 시시하거나 대중 영합적인 글을 만들어내기 쉽다.

밀은 무릇 지식인이라면 영혼을 담은 글을 써야 한다는 것을 명징하게 일깨워준다. 역시 글로 승부를 내는 사람다운 생각이다. 이 점에서도 그는 아버지의 생각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 같다. 제임스 밀 역시 신문이나 잡지에 글 쓰는 것을 그리 탐탁해하지 않았다.⁷⁾

2) 토크빌: 완벽주의자의 글쓰기

토크빌은 뜨거운 사람이었다. 그는 글을 쓸 때도 혼신의 힘을 다 쏟아 부었다. 그는 <<미국의 민주주의>>를 준비하던 1833년 “나는 내가 다루고자 하는 문제에 대해 깊이 숙고하지 않으면 글을 쓸 수 없다”고 했다. 그가 두 주제에 대해 동시에 글을 쓴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세월이 흘러 1856년이 되면 그의 ‘괴벽’은 그 정도가 더 심해진다.

토크빌은 어떤 글을 쓰려고 마음을 먹으면 비슷한 주제의 글을 결코 읽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의 해석과 판단의 영향을 받아 자신의 생각이 흔들릴까 염려했기 때문이다. 토크빌은 그 대신 문서를 뒤져서 스스로 사실을 발굴해내는데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다. 다른 저자의 글을 읽었다라면 훨씬 쉽게 찾아냈을 것을 우직하게 혼자서 해냈다. 토크빌은 “다른 사람의 관점 위에서 글을 쓰면 내가 가진 나의 진정한 재능을 전부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가치 있는 일을 전혀 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따라서 토크빌의 글을 읽으면 믿음이 간다. 글 한 줄 한 줄에서 진정성이 느껴진다. 그가 양심에 따라 균형 있게 글을 쓰기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토크빌은 《미국의 민주주의》 서문에서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이 책을 비판하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자신이 혼신의 힘을 다해 참으로 진실하게 글을 썼다는 사실만은 힘주어 강조한다. 이 점에 관한 한 독자들의 전폭적인 신뢰를 ‘강요’하기까지 한다.

7) 제임스 밀은 《웨스트민스터 평론》 창간호를 낼 무렵에 이런 말을 남겼다. “신문과 잡지의 글은 다른 책들처럼 시간을 두고 성공을 기다릴 수는 없다. 대번에 성공하지 않으면 솟제 성공할 수 없다……따라서 독자 대중이 이미 품고 있는 의견들을 내세우거나 선전할 뿐, 그것들을 시정●개선하려 하지 않는 것이 통례이다.”

토크빌의 글 쓰는 자세 또한 진실했다. 그는 자신의 글이 가까운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지만 개의치 않았다. 자신이 진심으로, 그리고 철저하게 ‘중립적인 시각’에서 글을 쓴다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토크빌은 ‘특정 진영’에 속한 사람들과 “사물을 달리 볼” 뿐 아니라 그들보다 “더 멀리 보려고” 했다. 그런 사람들이 “내일의 문제”에 관심을 집중했다면, 그는 “더 먼 미래의 일”에 대해 고민하고자 했다.

토크빌은 완벽주의자였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들게 글을 쓴다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었다. 그는 1835년 밀과의 서신 교환이 시작되고 몇 달 지났을 때 밀에게 자신의 글쓰기 습관에 관해 들려주었다.

나는 글 쓰는 속도가 아주 느립니다. 내 마음에 들게 쓰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완벽하지 않은 상태로 끝낸다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평소 독자들이 글 쓰는 사람이 정말 최선을 다하도록 강박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왔는데, 나 자신이 이런 의무에 부끄럽지 않도록 애를 씁니다.⁸⁾

토크빌은 2년 뒤에도 밀에게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사람들이 나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신경이 쓰입니다. 글을 완벽하게 쓰고 싶은 욕심에서 아주 사소한 것까지 세심하게 다루고, 그러다 보니 일이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토크빌이 좋은 글을 쓰기 위해 기울이는 노력은 비범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앙시앵 레짐과 프랑스 혁명》의 대단히 짧은 단원 하나를 쓰기 위해 1년 이상 노력을 기울였음을 자랑스럽게 밝혔다.

토크빌은 당시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알제리에 대한 전문가였다. 그는 알제리 현지 사정을 파악하기 위해 두 번이나 아프리카를 다녀왔다.⁹⁾ ‘알제리 전문가’ 토크빌은 연구

8) 당시 토크빌은 밀의 요청을 받아 그의 잡지에 글을 쓰게 되었는데, 관례에 따라 글쓴이의 이름이 실리지 않았다. 토크빌은 “내 이름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마치 프랑스에서 내 이름으로 발표되는 글인 양 신경 써서 직업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9) 토크빌은 일찍부터 알제리에 주목했다. 그는 프랑스가 지지부진한 국내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알제리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833년에는 케르그를레와 함께 알제리에 땅을 사서 정착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했다. 이를 위해 아랍어를 배울까 생각했다. 이슬람 경전인 코란도 공부했다. 그는 이 공부를 통해 이슬람교가 속명론에 짓눌려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토크빌은 이런 지식을 바탕으로 프랑스의 알제리 정책을 입안하고 싶었다. 그리고 1837년 알제리에 관한 첫 논문을 썼다(Richter 1963, 375쪽). 이런 전력 때문에 그는 의회에 들어가자마자 알제리 전문가 대접을 받았다. 1841년에는 보몽과 함께 3개월 일정의 알제리 현지 조사 계획을 세웠다. 그는 알제리로 떠나기 전에 관련 공문서들을 샅샅이 읽었고, 현지에 나가 있는 사람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정보를 수집했다. 그리하여 알제리에 대해 알아야 할 것 대부분을 미리 숙지한 상태로 여행을 떠났다. 그러나 아프리카에 도착하자마자 장염에 시달리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았다. 끝내 혈변을 동반한 이질 때문에 일정을 단축할 수밖에 없었다. 비록 첫 번째 알제리 여행은 한 달 남짓으로 끝났지만 그는 보고 들은 것을 수첩에 빼곡하게 기록했다. 글로 본 것과 직접 확인한 현실 사이의 괴리가 컸다. 토크빌은 1846년에 다시 알제리에 갔다. 이번에는 위험을 무릅쓰고 내륙 깊숙이 들어가 3개월 동안 현장을 관찰했다. 그는 이 여행을 바탕으로 그다음 해에 두 차례 장문의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함으로써 프랑스의 알제리 정책에 큰 영향을 끼쳤다.

대상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다. 그가 적잖이 관심을 기울였던 인도 문제에 관해 책을 쓸 준비를 하다 끝내 단념하게 된 것도 바로 이 때 문이었다. 토크빌은 오래전부터 영국의 인도 경영에 관심이 있었다. 알제리 등 프랑스의 해외 식민지 정책을 온전히 수립하는 데 도움을 얻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영국 사람들이 소수의 인력만으로 그 거대한 인도 대륙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지 알고 싶었다. 그는 1840년 가을부터 인도 사정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3년 동안 열심히 자료를 섭렵한 뒤 <인도 노트>를 작성했다. 토크빌은 장차 책도 쓸 생각이었다. 그가 생각하기엔 인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자면 현장을 직접 관찰하는 것이 필수적이었다. 그러나 그 당시 그는 인도를 방문할 처지가 못 되었다. 결국 그는 인도에 관한 집필을 포기했다. 그리하여 그가 책으로 내기 위해 준비했던 <노트>만 전해지게 되었다.

토크빌의 글 쓰는 방식은 독특했다. 전체 틀과 기본 방향을 먼저 정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생각이 이끄는 대로 써나갔다. 토크빌은 여러 번 밀에게 글쓰기의 어려움에 대해 하소연했다. 원고를 생각하면 마치 가위눌린 듯 압박감을 느낀다고 했다. 머릿속에 아이디어는 넘치는데 그것을 어떻게 풀어낼지 아직 확실하지 않아 고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글쓰기 습관을 들려주었다.

……알다시피, 나는 결코 어떤 체계를 정해놓고, 또는, 맞든 틀리든, 특정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펜을 들지 않습니다. 나는 그저 생각이 자연스레 흘러가도록 내버려둡니다. 이리저리 논리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떤 글을 끝내기 전에는 제가 정확히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될지, 또는 과연 무슨 결론이 나거나 할지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이 대단히 고통스럽습니다.

토크빌은 이런 식으로 늘 단숨에 우아하고 명쾌하게 초고를 썼다. 그런 다음에는 따로 더 다듬지 않았다. 토크빌은 글을 쓸 때 ‘고전적 명료함’을 중시했다. 생각을 우아하고 명확하게 표현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이것은 그의 집안의 정신적 유산이었다.

3) 글 쓰는 보람

밀은 자신이 살아온 삶의 궤적에 만족을 느낀 것 같다. “돈과 명예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전문 직업, 이를테면 아버지가 권고했던 변호사 같은 직업을 선택하지 않은 것을 조금도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술회한 것으로 미루어 알 수 있다.

밀은 일평생 자신의 공리주의 철학에 맞춰 살다간 사람이다.¹⁰⁾ 그가 글을 쓰고 정치

10) 《공리주의》에 이런 대목이 있다: “어떤 사람이 외형적인 조건은 상당히 괜찮은데도 자신의 삶을 충분히 즐기지 못하고 그에 따라 삶 자체가 그다지 풍요롭지 않다면, 그것은 대체로 그 사람이 자기만 알지 다른 사람들을 아끼고 배려하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공적이든 사적이든 애정을 쏟을 일이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삶을 흥분시킬 만한 것이 훨씬 적다. 그리고 일체의 이기적 욕심에 종지부를 찍고야 마는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면서 그나마 있던 흥분 상태의 가치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에 반해 몸은 죽더라도 개인적으로 애정을 쏟던 일을 남겨둔 사람, 특히 그 일과 더불어 인류 전체

활동을 펼친 것도 이런 정신적 맥락과 크게 어긋나지 않은 것 같다. 밀의 일대기를 뒤져보면 그가 자신의 글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해했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그야말로 apatheia의 경지에 오른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이다.

토크빌은 달랐다.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일에 연연하지 말라”고 했던 공자가 자꾸 연상된다. 그런데 공자가 《논어》에서 그 말을 여러 차례 되풀이했던 소이는 무엇일까? 그 자신도 그 욕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반증이 아닐까?

토크빌은 책을 통해 명성을 얻고 싶었다. 그는 대중의 인기에 힘입어 정치적 입지를 굳히고 싶었다. 토크빌이 학술원에 집착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다. 그는 《미국의 민주주의》 2권이 자기에게 학술원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길 희망했지만 그것도 생각만큼 쉽지 않았다. 이 때문에 그는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런 토크빌을 보고 그의 정치적 대부(代父)가 크게 꾸짖었다. 루아예-콜라르의 충고는 지금도 경청할 만한 것이었다.

당신은 너무 성공에 욕심을 내는군요. 언론에 그렇게 신경 쓰면 결코 위대하고 멋들어진 일을 해낼 수 없어요. 미래를 위해, 그리고 바라건대 후손들을 위해 일을 해요. 오직 그런 데만 마음을 써요.¹¹⁾

6. 현실 참여

1) 하원의원 밀

밀과 토크빌의 삶에서 열여섯 살 무렵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그때 토크빌은 아버지의 서재에서 마구 지식을 흡수하다가 결국 모든 것을 의심하기에 이르렀다. 인생의 폭풍기였다. 그때 잉태된 존재론적 아픔이 평생 그를 괴롭혔지만, 바로 그 아픔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아는 토크빌이 탄생할 수 있었다.

밀은 그 나이에 벤담을 읽었고, ‘나이에 맞지 않게’ 언론에 글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 열여섯의 밀은 또한 정치를 꿈꾸었다. 뛰어난 웅변 실력을 갖춘 ‘지롱드’ 의원이 되고 싶었다. 과연 그는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도와 정치 운동에 관여했다. 그가 보기에는 아버지야말로 난국을 헤쳐 나갈 최적의 정치가이었다. 밀은 아버지를 닮고 싶었다. 적어도 젊은 시절에는 그 가능성에 대해 크게 고민한 것 같지 않다. 그는 동인도회사에 몸담고 있어 하원 의원 출마를 생각할 수 없었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정치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앞섰다. 그래서 글을 쓰고 전략을 짜고 현역 정치가들을 ‘지도’했다. 그는 진보적 자유주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의사당이라는 정치 무대가 필수

의 공영(共榮)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을 길러온 사람은 죽음을 눈앞에 둔 순간에도 청춘의 활력과 건강은 물론, 인생에 대한 생생한 의욕도 유지할 수 있다. 우리 삶을 불만족스럽게 만드는 첫 번째 원인은 이기심이다. 그리고 그 다음은 정신 교양의 부족이다.”

11) 애타도록 마음에 서둘지 말라/ 강물 위에 떨어진 불빛처럼/ 혁혁한 업적을 바라지 말라

--김수영, 봄밤

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급진주의 개혁 운동이 스러진 뒤 밀은 오랜 세월 동안 정치를 떠나 있었다. 직장 일과 개인적인 집필 활동에 전념했다. 그가 해리엇을 만나 사람들을 멀리하게 되면서 정치는 더욱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 물론 그는 사회를 개선, 진보시키기 위한 글은 끊임없이 썼다. 자신의 존재 이유나 마찬가지로 일을 등한히 할 수는 없었다. 그러다가 1865년에 밀은 의회 선거에 나서게 되었다. 그는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봤다. 아무래도 정치보다는 그냥 계속 글을 쓰는 것이 국가와 사회에 더 잘 봉사하는 길일 것 같았다. 그의 《자서전》에는 욕심을 바라보는 나이에 그가 어떻게 인생길의 전회轉回를 결심하게 됐는지가 분명히 드러나 있지 않다. 막연하지만, 동료 시민들의 간곡한 요청을 거부할 수 없었다는 말이 나온다. 사회에 빛진 자로서 사회의 요청을 계속 거부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자신의 정치적 능력에 대한 판단보다는 시민으로서의 의무감이 그의 정치 참여를 이끌어낸 제1변수였던 것 같다.

밀은 3년간 하원 의원 생활을 한 뒤 재선에 나섰으나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다. 그때 그는 정치가 자신의 ‘취향과 기질’에 맞지 않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그에게는 아비뇽에서 플라톤을 읽는 것을 능가하는 즐거움이 없었다. 그는 자신이 내세웠던 정치가의 조건에 자신이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절감했다. 재선에 실패한 뒤 그는 이런 감회를 털어놓았다.

진보적 자유주의의 패배가 마음 아프기는 하나, 내 취향과 기질에 딱 맞는 유일한 일거리로 다시 돌아갈 수 있어서 자유롭고 흥겨운 기분입니다. 사실 기쁨의 감정이 더 큼니다. 나는 의사당 밖에 있더라도 진보적 자유주의를 위한 일은 변함없이 활발하게 전개할 것입니다.

2) 정치인 토크빌

밀에 비해 토크빌은 정치 투신을 당연하게 생각했다. 우선 집안 분위기가 그랬다. 유럽의 귀족 가문은 대대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소중히 여겼다. 나라를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한다는 자의식은 곧 정치 참여로 이어졌다. 토크빌도 소년 시절 이래 줄곧 ‘정치의 길’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것은 하나의 의무나 마찬가지였다. 그는 법률 학교를 졸업하고 일시적으로 관리의 길을 걸었지만 그 일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 그렇다 보니 별다른 능력도 발휘하지 못했다. 다소 단선적인 해석이기는 하지만, 토크빌이 《미국의 민주주의》를 쓴 일차적 이유도 명성을 얻어 정계 진출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데 있었다. 토크빌은 존재론적 번민을 털어버리는 데 위대한 영웅적 활동 이상 가는 것이 없다고 확신했다. 정치 세계로 나서는 것은 그에게 운명과도 같았다.

그러나 하원의원(1839-1851)과 외교부장관(1849. 6.-1849. 10.) 등 10여 년에 걸친 정치 생활 동안 토크빌에게는 좌절감이 쌓여갔다. 그는 청년 좌파를 결성하고 싶었지만 여의치 않았다. 새로운 자유주의를 구현하고 싶었지만 그 역시 뜻대로 되지 않

았다. 자신에게 과연 정치가의 자질이 있는지 회의가 커졌다. 이렇게 된 데는 환경이 그를 외면한 탓도 있었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토크빌 본인의 성격과 기질에 있었다. 결벽증이 있는데다 소심하기까지 한 그의 성격으로는 의사당에서 큰 뜻을 펼 수가 없었다.

1842년, 그는 아내에게 자신이 “아직 특별하게 이룩한 것이 없다”면서 고민을 털어놓았다. 정치에 입문한 지 3년밖에 안 된 시점이었다.

나는 어려서부터 정치를 하고 싶어 했지만 과연 이것이 나에게 맞는 일인지 확신이 들지 **않아**. 매일 애써 수고해야 하고, 그때그때 적합한 대책을 내놓기 위해 항상 준비하고 대기하고 단호하게 결정해야 하는 이런 생활이 나에게 안 맞는 것 같**아**. 나는 벨랑콜리하고 (열정이 따르는 일이 아니면) 게으르고 낙담하기 쉬운 성격이**지**. 정치는 깊고 좁은 내 성격과는 너무 동떨어진 일인 것 같**아**.

결국 토크빌은 정치 생활을 마무리할 무렵에야 문필가의 길이 자신이 택할 길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그는 이미 1850년에 “행동보다는 생각, 곧 정신작업”에 방점을 찍었다.

오래 전부터 다시 한 번 위대한 작품을 만들고 싶은 욕망이 생기고 있어. 나의 참된 가치는 무엇보다 정신 작업을 하는 데 있는 것 같**아**. 나는 행동보다 생각 쪽에서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어. 내가 앞으로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남아 있다면, 그것은 어떤 일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보다 그동안 내가 써왔던 글의 연장선상에 있을 것으로 생각해.

3) 지식인의 현실 참여

밀과 토크빌은 지성, 오늘날로 치면 비전을 갖춘 지식인들이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공의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었다는 점이다. 개인의 영달과 세속적인 영화는 그들의 안중에도 없었다. 두 사람은 많은 것을 갖춘 정치인이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지성과 헌신만으로는 그들이 소망했던 도덕정치와 위대한 정치를 구현할 수 없었다. 대중을 상대로 정치를 해야 한다는 엄연한 현실에 대한 지각이 모자랐기 때문이다.

첫째, 두 사람 다 ‘권력 의지’가 약했다. 밀은 ‘아니면 말고’ 식이었고 토크빌은 너무 도도했다. 그런 태도는 지식인에게는 큰 덕목일 수 있지만 직업 정치가에게는 걸맞지 않다.

둘째, 대중을 상대로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밀이 말한 “대중 친화적 능력” 또는 토크빌이 말한 “사람을 끌어 모으는 능력”은 정치가가 갖추어야 할 필수 요건이다. 두 사람 다 그 점에서 결격이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개 지식인이라는 이름에 부합하는 사람들은 밀과 토크빌의 성격에 가깝다. ‘대중 친화적’이면서 공부도

잘하기를 바라는 것은 과욕일 것이다.

셋째, 생각이 깊은 사람일수록 대중과 보폭을 맞추기가 힘들다. 정치가는 대중을 이끌
되 너무 앞서 나가지는 말아야 한다. 지식인은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 자기 확신
이 없으면 지식인이라 할 수도 없는데, 그 신념이 과하면 정치에 독이 되기 때문이
다. 베버가 경고한 것처럼, 자기만의 신념 윤리¹²⁾에 갇혀 있으면 대중과 손잡고 함께
행진할 수가 없다. 내 생각은 옳고 따라오지 않는 사람이 문제다, 이런 생각으로 정
치를 하면 대중과의 괴리가 생길 수밖에 없다. 독선으로 치달는 것도 피할 수 없다.
밀은 진보적 자유주의를 꿈꾸었지만 그 신념이 너무 강고한 나머지 동료 의원들과도
틈이 벌어졌다. 토크빌은 위대한 정치를 펼치고 싶었지만 그의 생각과 기질이 주변
사람들마저 질리게 했다.

밀과 토크빌 모두 자신의 정치 생활을 되돌아보며 동일한 회한에 잠겼다. 지식인은
역시 글을 써서 역사에 보답하는 것이 정당이라는 사실을 재확인 해주었다. 사회에
진 빛을 갚되 ‘강단’에 충실하라고 했다. 그것이 지식인의 숙명에 부합한다고 했다.
‘참여 지식인’ 밀과 토크빌이 하는 말이다.

7. 이 시대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

밀은 수도승 같은 삶을 살았다. 이념의 쫓대를 향해 흔들림 없이 정진했다. 그 모습
이 경건하기까지 했다. 그의 글도 그랬다. 밀은 아버지로부터 입이 떡 벌어질 정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늘 부족하
고 불완전하다고 경계했다. 양쪽을 살피면서 새로운 것이면 주저하지 않고 받아들였
다. 그는 공부하는 열정 하나만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고 싶었다. 그 열정이 그가
내세우는 단 한 가지 자랑거리였다.

밀은 젊어서, 아니 어려서부터 수많은 글을 썼다. 그의 글 쓰는 태도는 여일如一했다.
그는 진리를 찾아 용맹정진 했고, ‘진보적 자유주의’의 이론적 체계화를 위해 분투했
다. 중요한 것은, 밀은 글을 쓸 때 항상 시대의 요구를 염두에 두었다는 점이다. 그는
결코 백면서생이 아니었다. 직관주의가 팽배하던 당대 지성계에 맞서 경험주의를 외
쳤고, 신사紳士와 부르주아지를 성토했으며 ‘자유사회주의’를 제창했다. 그의 글에는 시
대에 대한 그 자신의 답이 들어 있었다.

밀은 일필휘지一筆揮之 글을 썼다. 오래 천착하고 숙고한 다음 그냥 죽 써 내려갔다.
그러고는 그 글을 오랜 시간 묵혀두며 성찰을 거듭했다. 필요하다 싶으면 출판과 상
관없이 그냥 글을 써두기도 했다. 청탁을 받고 마감 시간에 쫓겨야 글을 쓰는 사람은
한숨만 나오는 경지이다.

12) 막스베버는 행위자가 신념에 도취된 나머지 어떤 행위의 결과가 잘 못 되었을 때 자신의 책임은 간
과한 채 남의 탓만 하는 것을 신념 윤리라고 불렀다. 그 반대로 행위자가 남의 탓을 하지 않고 자신
의 행위에 책임지는 것은 책임윤리라고 한다. 베버는 정치적 행위는 책임 윤리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
다고 했다.

토크빌은 명문세가의 후손이지만, 그가 특별한 교육을 받은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이 점에서 그는 밀과 대비된다. 《미국의 민주주의》를 쓴 토크빌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어떤 경로로 ‘생산’되었는지는 미스터리에 가깝다. 토크빌이 십대 중후반의 나이에 아버지의 서재에서 이 책 저 책 가리지 않고 읽은 것, 그리고 이십대 중반에 친구 보몽과 함께 역사 공부를 열심히 한 것이 우리가 아는 비밀의 전부이다.

토크빌은 평등 사회의 재앙을 방지할 생각에서 《미국의 민주주의》를 썼다. 그에게는 ‘새로운 정치학’이 지상 과제였다. 동시에 그의 글쓰기 이면에는 출세욕도 자리 잡고 있었다. 그가 정치판에 나서는 데 도움이 될 일종의 훈장으로서 책을 쓴 것이 사실이다. 《앙시앵 레짐과 프랑스 혁명》은 이루지 못한 정치의 꿈을 달래기 위한 보상용에 가까웠다. 《미국의 민주주의》 1권이 거둔 대성공은 그 뒤 토크빌의 삶에 오히려 족쇄가 되었다. 그는 후속작들의 ‘흥행 부진’에 크게 괴로워했다. 이 점에서도 그는 ‘경건주의자’ 밀과 대비된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토크빌의 인간적인 면모를 부각할지언정 그를 속물로 하찮게 취급할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적어도 그가 얼마나 치열하게 글을 썼는지 안다면 말이다. 그는 자신의 글이 오랜 각고의 산물이라고 자신 있게 말했다. 그는 편견 없이, 공정하고 진솔하게 글을 쓰기 위해 노력했다. 그렇다고 열정 없이 쓰지는 않았다. 그가 쓴 글들이 여러 사람을 아프게 하고 여론을 거슬렀지만 그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다. 토크빌은 “유감스러운 일일망정 후회는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밀에게 편지를 보내 글쓰기의 고통을 하소연했다. 글자 그대로 동병상련同病相憐이었다.

밀과 토크빌은 글 쓰는 일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다. 밀은 젊어서부터 다양한 형태로 정치에 관여했고, 60 나이에 하원에도 들어갔다. 토크빌은 인생의 황금기를 전부 정치 현장에서 보냈다. 밀은 진보적 자유주의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자신이 의회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토크빌은 위대한 정치의 실현이라는 소명에 몸을 던졌다. 말하자면 밀과 토크빌은 ‘참여 지식인’이었다. 두 사람 다 자기 이름을 걸고 진지하게 의정생활을 했다. 그러나 그 성과는 그리 두드러지지 않았다. 그들의 문필가로서의 명성과 비할 바가 못 되었다. 최종적으로, 두 사람 다 행동보다는 글이 더 자신들에게 맞는 천업이라고 정리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면 사회에 대한 빛의 무거움을 통감해야 마땅하다. 소리小利를 탐하면서 세상과 등을 돌리고 사는 것은 지식인으로서 할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현실 참여만이 능사는 아니다. 자격이 모자라는 지식인의 선부른 행동은 오히려 누가 될 뿐이다. 밀과 토크빌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의 글 속에 시대와 국가의 문제 의식을 담아낼 수 있다면 그것이 지식인이 자유인의 도리를 다하는 최선의 길인 듯하다. 또는 플라톤이 말했듯이, 그냥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것도 큰 기여이다.¹³⁾ 이래저래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지식인들이 특히 무겁게 들어야 할 말이다.

13) 플라톤은 각자가 자기 자리에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정의의 지름길이라고 했다(《국가》, 433a).

에필로그: 일본의 《자유론》

2009년 9월 《자유론On Liberty》 출간 150주년을 기념하는 국제학술회의가 일본에서 열렸다. 한국, 일본, 중국 동양 3국의 학자와 영국, 미국의 존 스튜어트 밀 전문가들이 참석한 그 모임에서 나는 꽤 큰 ‘충격’을 받았다.

밀의 《자유론》이 영국에서 출판된 지 불과 13년 만에 일본의 나카무라 게이우(中村敬宇)가 《自由之理》라는 이름으로 그 번역판을 내놓았다. 그 과정에서 일본의 지식인들은 함께 모여 공부하고 토론하면서 liberty, right, society 등 생소한 영어 어휘들을 ‘자유, 권리, 사회’ 등과 같은 일본말로 옮겼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서양 학문 용어들이 당시 일본 지식인들의 번역 고안물의 결과라고 보면 그리 틀리지 않을 것이다. 그보다 조금 늦기는 해도, 1903년 중국에서도 안푸(嚴復)에 의해 번역서가 나왔다.